



The
담다

예술을 담다

INTERVIEW

피아니스트 김대진

FOCUS

우리, 예술로 통하다

GALLERY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전시

THEATER

아티스트 한영애



분주한 손놀림을 관통하는 여백의 미



피아니스트 김대진

약속 시각 1분 전, 방문을 두드리자 “인터뷰가 있어서요.”라며 손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너그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생활하는 김대진 교수는 철저한 시간 관리로 피아니스트, 지휘자, 교육자, 기악과장까지 수많은 역할을 소화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의 음악 황제’라는 칭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행보가 긴장되고 설렌다는 그의 얼굴에는 시간에 쫓기는 자의 먹구름 대신 넉넉한 미소가 깃들어 있다. 살아온 시간이 쌓여 완성되는 것이 얼굴이라면, 평온한 여유가 스며 있는 그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졌을까.

글 이주연 사진 Hae Ran

INTERVIEW

김대진
피아니스트

“복잡한 악보일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선, 음표, 기호들 그리고 사방을 차지하는 여백이죠. 이런 여백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이자 공간으로서의 여백이요.”



많은 역할이 많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피아니스트, 교향악단 지휘자, 예술 영재 교육자, 음악원 기악과장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일을 소화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야 할 만큼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있던 여유마저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매일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그 안에서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요.

피아노를 시작한 계기로 언급되는 할머니와의 에피소드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 시절, 집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가 찬송가 가락을 가르쳐주신 덕분에 음악을 시작했다는 일화이죠. 처음 피아노를 만진 그날을 기억하고 있나요?

오래된 일이어서 피아노를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까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또렷하게 생각나요.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과거인 ‘전공으로 마음먹은 순간’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인터뷰에서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떠올려보려고 해도 좀처럼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던데, 음악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 궁금해요.

아직 학생이던 유학 시절, 아르헨티나 출신인 마르타 아르헤리치 Martha Argerich의 리사이틀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도 없을 때여서 오로지 LP로만 음악을 접하던 때였죠. 그녀의 연주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데서 느낀 감동이 아직도 강하게 생각나요. 하지만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움직인 경험은 많지 않아요. 감동을 느끼는 것보다는 감동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음악을 만들까 고민하는 데엔 항상 괴로움이 뒤따라요.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자들은 더 크고 확실한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재 교육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인물을 영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베토벤 마지막 장을 연주한다고 해 봅시다. 베토벤 마지막 장을 완벽하게 연주하려면 인생을 달관한 듯한 자세가 필요해요. 초연의 자세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 어린아이가 마지막 장을 연주한다면 신기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연주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 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주하는 거니?’라고 물었을 때, 진짜 영재라면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예요.’라고 답할 거예요. 본인에게 표현



력과 소화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채 곡이 담고 있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영재인 거죠. 음악적인 선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선욱, 손열음, 문지영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제자로 길러내셨어요. 연주자의 '개성'을 살리는 데 집중하신다고요.
연주자에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독창성이예요. 제 목소리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잖아요. 악기 소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것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소리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나만이 가진, 나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독창성이고, 독창성이 곧 개성이죠.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도화지 안에서 그릴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피아노 교육도 그렇죠. 도화지 같은 객관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개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 교육관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객관적인 틀이라고 하니까 교수님의 흥미로운 교수법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객관적 틀 여섯 가지'를 몸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신다고요.
소리, 박자, 리듬감, 프레이징, 페달, 끼, 이 여섯 요소가 모여서 앞

서 언급한 '틀'이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접시인 셈이죠.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종이 접시에 담으면 맛이 반감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견고한 접시, 그리고 아름다워야 맛도 더 좋아져요. '단단하고 아름다운 접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여섯 가지 요소죠.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좋은 접시를 마련하는 것에 절대 소홀해선 안 돼요.

연주자의 개성이 중요한 요소라면 피아니스트로서 본인의 개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독창성은 본인이 몰라야 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부터 후천적인 요소가 투입된 거거든요. 개개인의 개성은, 오랜 기간 여러 연주를 통해 특징적인 면이 주목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개성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는 듣는 사람들의 몫이죠.

수행 중인 다양한 역할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공감과 교감이 아닐까 해요. 제자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공사 구분 없는 만남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대화여도 역할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제 자세는 조금씩 달라요.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해서예요. 레슨에서 보는 모습으로만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한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다 보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과 유대감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무시할 순 없어요. 반면, 오케스트라와의 대화는 관찰보다 신뢰의 측면에 닿아 있어요. 지휘자가 무언가 요구했을 때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요구는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스트라는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모인 단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신뢰가 없다면 제가 이끄는 대로 표현되질 않겠죠. 교향악단과의 대화는 저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더불어 제자 자신의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는 모든 일에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돌아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주신다면요?

복잡한 악보일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선, 음표, 기호들 그리고 사방을 차지하는 여백이죠. 이런 여백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이자 공간으로서의 여백이요. 여백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또한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피아니스트 김대진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반가운 독주회 소식을 들었어요.

4월 27일,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연주는 음악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이번 자리를 기대하고 있죠. 독주회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예요.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두 곡, 슈베르트 소나타 두 곡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두 음악가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그려나가는 방식이죠.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무척 존경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상 만나보고 싶어 하고, 동경하기도 했죠. 슈베르트의 곡에서는 베토벤을 흠모하는 모습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성향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차이점도 명확해요. 베토벤이 끝없이 노력하는 불굴의 의지형이었다면, 슈베르트는 이른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다른 점을 부각하며 연주할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오르시는데, 피아니스트로서 무대에 오를 때와 지휘자로서 무대에 오를 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객석에서 제자의 무대를 보는 것 또한 새로운 기분일 듯하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연주자는 선수고 지휘자는 감독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한다는 것은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으로 입장하기 위해 굉장한 몰입이 필요하죠. 반면, 지휘자일 땐 많은 부분이 의식의 관할 안에 있어요.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하므로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커요. 지휘자로서의 무대에서는 교향악단이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저로 하여금 연주자들이 정신적인 위안을 얻어야 하고, 신뢰도 쌓아야 하고, 그 외 수많은 것이 얹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제자들의 무대를 보는 것은 앞선 두 경우와는 완전히 달라요. 철저한 관찰로 이루어지거든요.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봐 주어야 해요. 제자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연주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가의 자세로 무대를 지켜보게 되죠.

무의식의 세계로 입장한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어요. 피아니스트로 오른 무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저는 왜 그런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공연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발생하고 그 자리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 당시를 공유한 사람들의 기억으로밖에 남을 수 없어요. 재생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전부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만 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공연은 연주가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이나 비예술적인 요소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은 몹시 추웠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연주가 힘들었어.’ 같은 내용이지요. 현실적인 기억과 감각들은 언제라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수십 년간 음악계에 머물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를 알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웃음). 이 나이에 매번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건 미성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그래요. 사실 연주에서 노하우를 꿰고 있다는 건 살아 있지 못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저는 긴장감도 창작의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편하게, 익숙하게 여겨버리면 특별한 것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의 노하우는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떨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존경하는 음악가가 궁금해요.

백건우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한 적도 있는데요.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 언제나 동기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길을 걷다가도 특별한 건축물이나 자연물을

보면 사진을 찍고 만져보면서 영감을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 연세에도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교수님은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져요. 다시 태어나도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태어났는데 왜 또 음악을 하겠어요(웃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릴 때 꿈인 의사가 되고 싶어요.

워낙 바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게 실례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표나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어느 날 불현듯, ‘50대 후반이면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천천히 커피도 마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정말 바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에 지금껏 수많은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쪼개가며 계획적으로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30, 40대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요. 70대쯤 되면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70세가 되었을 때 그 대답 들으려 다시 올게요(웃음).

네, 그때 뵈도록 하죠(웃음).



우리, 예술로 통하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을 잇기 위한 소통의 방법을 고민한다.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서로의 소통을 지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 모른다.

글 신혜진(기획홍보팀)

그림을 채우는 물감보다 사람을 채우는 마음

“물감 살 돈이 없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2013년 즈음 대학로가 있는 혜화역에 붙어 있던 옥외 광고의 문구였다. 커다란 광고판에 붙은 이 광고는 물감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뒤로 갈수록 흐려진다. 정말 물감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 광고를 보고 잠시 생각했다. 정말 예술은 배고픈 걸까? 과연 미술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감’이라는 물질적인 지원일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를 열었던 박승순 작가는 관객과 대화를 하며, 작가를 지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녀의 경험담이었다. 프랑스의 미술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미술 재료를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고급 재료를 편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예를 들면 직접 캔버스를 만들 천과 틀을 만들 목재를 제공하는 식이다. 조금은 손이 가는 작업이지만 학생들은 마음껏 재료를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졸업식에 지역의 예술품 컬렉터들과 기업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졸업 후의 예술 활동에 투자할 투자자를 연결해준다고 한다. 후원자들은 2~3년간 작가들의 활동을 위한 재료비 등에 투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후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또 다른 졸업생에게 투자한다. 예술가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물감 살 돈이 없는 이들에게 당장 연락하라는 광고와 프랑스의 후원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동탄아트스페이스의 큐레이터 전하나 대리는 신인 작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 방법으로 전시 지원을 꼽았다. 갤러리에 걸린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그들에게 부족한 건 지속적인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하지만 개인전을 여는 것은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직 인지도를 얻지 못한 신진 작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이 있다는 것은 신진 작가들에게는 큰 동기 부여가 된다. 지난해 초 진행한 ‘신진작가 공모전’의 작가들은 동탄아트스페이스와 함께 총 3번의 전시를 열었다. 정식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는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에 대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로비 그리고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아트아시아ART ASIA’까지.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이 자리했던 아트아시아였다. 참여한 여러 명의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전유진 작가는 학생 시절 동경하던 작가들과 한 공간에 자신의 작품이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또한 일반 관객은 물론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큰 힘이 된다고. 아트아시아를 통해 그녀가 얻은 것은 ‘물감’이 아니라 ‘소통’의 기회다.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법 다양한 방식의 예술가 지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서울시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상점들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인테리어 전문가를 고용해 가게를 꾸미는 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 주인이 타고난 센스와 미적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각각의 개성을 담아 꾸며진 공간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작은 가게의 주인들에게는 특색 있는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부터 상품 패키지, 명함 제작 등에서 도움을 주고,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소통할 기회를 주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를 운영하고 있다.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우리 회사 로비는 갤러리

삼성전자, GS홈쇼핑, 한국경제신문, 코오롱그룹, 조아제약 등

화성시문화재단의 '화룡점정'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지역의 작가들과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로비에 전시하는 팝업갤러리였다. 출퇴근을 하고, 업무 차 회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작품 관람의 기회가 되고,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방법으로 로비 갤러리를 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흥국생명, 신촌세브란스병원, 코오롱그룹 등은 로비에 마련된 갤러리에 정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조아제약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아동창작지원사업인 '프로젝트 A'를 운영하고, 완성된 작품들을 회사 로비에 매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로비를 활용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옆집 예술가의 공간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은 '작가는 갤러리에서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화성예술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예술가의 작업실'은 '숨어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기행'이라는 책 제목처럼 고독한 공간이거나 난해한 공간으로 대표되었다. 하지만 화성예술플랫폼은 좀 더 친근한 제목의 '옆집 예술가'로 시작했다. 예술가와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지난 2년 동안 18곳의 작업실에서 25명의 작가와 시민들이 만났다. 참여 작가들은 사람들의 방문을 계기로 묵은 작업실을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색다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체험한 초등학교 학생 관객이 오픈스튜디오를 신청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경우도 있다. 올해는 미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장르를 확장하고, 심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술 플랫폼 그라폴리오

네이버

'가능성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를 내세우고 있는 네이버의 그라폴리오 서비스는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공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창구다. 일반 대중은 다양한 작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작가들에게는 홍보 창구가 된다. 이 플랫폼 안에서 작가들을 위해 소액의 후원금을 지불할 수도 있으며, 여러 브랜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공모전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능성 있는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트아시아', '아시아프',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W' 등 아트페어에 참여할 기회는 물론 해외 진출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캔버스에 그려요.”

문세희

그녀의 그림 앞에서는 한 번쯤 꼭 멈추어 서게 된다. 물속에 잠긴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과 그에 대비되는 듯한 일렁임으로 혼란스러운 물 바깥의 모습들이 작품의 주를 이룬다. 'Breath'라는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그녀는 몽상을 표현하는 대상 중 하나인 '물'을 통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의 회상을 표현했다고 말한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한 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책 《물과 꿈》을 읽고, 물과 연관된 작업의 영감을 얻었다.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제 작품을 보는 관객들도 각자의 경험과 상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라며 사람들이 작품을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녀는 2014년 학교를 졸업하고 작품 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만 35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프'에도 4년째 참가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공모전이라 큰 도움이 된다고.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할 때나 작업할 때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거든요. 최근에는 그라폴리오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들의 반응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작품을 보신 분들이 전시장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그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어나갈 것이다. 'Breath'의 작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수중 사진이나 스킨스쿠버처럼 물과 관련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각자의 해석을 더해줄 관객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예정이다.

작가 문세희는 2014년 수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7년 동탄아트스페이스 신진작가 공모에 선정되었다. 2017년 갤러리탐, 2018년 갤러리일호에서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그라폴리오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전유진

꽃과 잎, 그 뒤로 아련하게 보이는 인물을 장지와 실크, 시폰 등을 활용해 표현하는 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는 전유진 작가의 그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매일 마주하는 풍경도 작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쓸쓸하게도 아름답게도 느껴지는 일상의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그림 속의 '나'는 작가 자신뿐 아니라 작품을 보는 모두다. 전유진 작가는 동양화라는 장르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림 위에 천을 오버랩하는 지금의 작업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학부 때는 저만의 방향을 찾는 데 주목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졸업 전시를 위한 작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졸업 후에는 정말 작가로서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신진작가 공모전의 계기로 참여한 '아트아시아ART ASIA'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기 힘든 큰 전시에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한 공간에 제 작품이 걸려 있던 그 순간이 정말 뿌듯했어요.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공모전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졸업 후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그녀는 공모전은 물론 다양한 온라인 SNS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작가 전유진은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조형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있다. 2016년 장욱진 미술관의 제1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에 입선하였으며, 제20회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 이후 안산, 수원, 화성 등 경기 지역에서 작품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제 그림을 통해
감정을 나누었으면 해요.”

그날의 의지를 그림으로 담다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전시 만세 懺歲(잊고 지낸 날)

온 민족이 만세를 부르짖던 1919년 3월 1일. 그때부터 100년이 지났다. 극심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작가들과 함께 그날의 굳은 의지를 그림에 담았다.

글 정혜미 자료제공 화성시문화재단





추진코 | 태극기를 든 여자

oh happy day



혜원 | '만세'를 외치고 지낸 날' 中



메이쑤 | 무궁화

당신을 향하는 노래



아티스트 한영애

한영애를 일컫는 수식어는 수도 없이 많다. 블루스의 여제, 소리의 마녀, 여사제... 심지어 이번 화성아트홀 공연을 앞두고는 그녀에게 '전설'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녀에게 이렇게 많은 별명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녀의 무대가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영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분명 훌륭한 보컬리스트지만 그것만으로 그녀를 설명하기엔 한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우라와 남다른 창법, 마치 제사장의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어쩌면 그녀에게는 아티스트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티스트 한영애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글 조용성(공연사업팀)

예술만큼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예술만큼 확실하게 세상과 이어주는 것도 없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한영애는 1975년 혼성 4인조 통기타 그룹 '해바라기'의 멤버로 데뷔했다. 많은 예술가가 다양한 경험을 거쳐 자신의 길을 찾았듯이, 그녀 역시 한동안 가수가 아닌 배우로 활동했다. 6년의 배우 생활을 거친 그녀는 자신의 길은 가수라고 생각해 다시 가수로 돌아오게 되었고, 1986년 1집 [여울목]을 발매했다. 큰 호응을 얻은 이 앨범은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독창적인 여성 보컬리스트의 탄생을 알린 의미심장한 앨범이기도 하다. 이후 그녀는 1988년 2집 [바라본다]를 통해 전 국민의 애창가요가 된 '누구 없소'를 비롯하여 '코뿔소', '루쌀', '바라본다' 등의 곡들을 히트시켰다. 주술적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강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곡 해석력이 돋보인 이 앨범은 8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함과 동시에, 한국 대중음

악 100대 명반에 오르며 그녀를 한국 대중음악사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이후 1993년에는 63빌딩에서 '아.우.성'이란 이름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공연 실황을 녹음한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 곳곳에서 그녀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앨범을 듣고 있노라면 라이브의 귀재라는 그녀의 별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후에도 그녀는 '공연이 너무 많아 방송 출연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연과 음악 활동에 많은 힘을 쏟았고, 포크에서 블루스 그리고 록까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그녀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며 한국 보컬계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제8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티스트로서 충분한 이력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2012년 <나는 가수다 2>에 전격 출연을 결정했다. 그녀의 출연은 예상한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였다.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의 장르로 분류될 만큼 입지 있는 가수가 1등에서 7등까지 줄을 세우는 경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전설이라 불리는 가수에게 경연이 부담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한 발 더 가까이, 한 뼘 더 깊게 다가가고 싶다는 소망이 그녀를 낚설어하는 대중 앞에 서게 한 힘이 되었다. 그녀는 경연을 통해 오히려 가장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며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녀가 얼마나 듣는 이와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뮤지션인지 많은 이들이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족적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렵잖아게나마 느끼게 된다. 그것은 그녀의 라이브 앨범 [아.우.성]이 ‘노래하는 내가(我) 친구인 대중과(友) 어우러져 한판의 잘 연기된 음악과 소리의(聲) 아우성’을 이루어낸다는 뜻을 가진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한영애는 오는 3월 '바람'이라는 공연 타이틀로 화성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자신의 목소리가 따스한 바람Wind이 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픈 자신의 바람Wish을 담은, 참 따뜻한 타이틀이다.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성을 공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대중과 호흡해온 한영애, 그녀와 관객이 화성에서 만들어내는 바람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본다.

한영애 콘서트 '바람'

일시	2019년 3월 23일 (토) 오후 5시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대상	중학생 이상
문의	1588 5234



화성시문화재단 레전드 시리즈2

2 0 1 9

한영애 콘서트

10/22



2019년 3월 23일 (토) 오후 5시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

할인 30% 조기예매 (2월 12일 ~ 2월 21일 까지, 13세 미만의 아동과 동반인 (성인), 청소년(13~24세) 및 대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단체 20인 이상, 50% 단체 50인 이상, 장애인(1~3급 본인 외 동반 1인 / 4~6급 본인), 국가유공자(본인), 만65세 이상(본인)

주최 • 주관 화성시문화재단 1588-5234 art.hcf.or.kr

The
가다

공간을 가다

PLACE

우리가 몰랐던 카페 이야기

TRAVEL

소다 미술관

ARCHITECT'S NOTE

화성 무봉산 만의사



우리가 몰랐던 카페 이야기



카페가 넘쳐나는 요즘, 화성의 특별한 공간들을 방문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디저트를 즐기는 것은 모두 같았지만, 그 안에 반짝이는 무언가, 그들만의 숨겨진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글 김지수 사진 윤동길

비커밍우드

경기도 화성시 자산1길 21-5



비커밍우드의 시작이 궁금해요.

저는 평소에 커피 만들기를 좋아하고, 누나는 디저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죠. 메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와중에 실패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시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지금의 비커밍우드를 시작할 수 있었죠.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보이는 소품이 많아요. 비커밍우드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커다란 콘셉트를 잡을 때 '앤티크' 분위기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평소에 저희 남매는 성격이 무척 다르고 공통 분야가 없는 편인데, 앤티크라는 콘셉트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아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죠. 비커밍우드라는 이름은 '적당한 분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에 맞게 너무 웅장하거나 화려한 앤티크가 아닌 빈티

지하면서 따뜻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인테리어에 신경 썼어요. 가정집의 정 가는 분위기를 생각했죠. 노력했던 부분을 손님들이 잘 알아봐 주셔서 좋았어요. 앤티크를 좋아하지 않던 분들도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카페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요즘은 카페 투어라는 개념도 있고, 커피와 디저트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날리는 분위기도 생겼잖아요. 사람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비커밍우드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저희는 '한결같은'을 추구해요. 좋은 곳으로 기억되어 다시 찾았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비커밍우드를 다시 찾았을 때 여전히 좋은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여백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45



여백의 시작이 궁금해요.

결혼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카페를 오픈하는 게 저희 부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대학에서 커피를 전공한 아내와 카페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던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서로가 지향하는 카페의 모습을 만들고자 한 거죠. 저희 부부가 평소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서 복잡한 인테리어보다는 여백이 많고 차분한 느낌으로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백'으로 지었고요.

화성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고향이 화성이었어요. 잠시 화성을 떠나 서울에 살기도 했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카페 위치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동네를 찾았어요. 그래서 병점에 자리 잡게 됐죠.

카페에 퍼진 크루아상 냄새가 인상적이에요. 여백의 대표 메뉴인가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메뉴는 '여백 커피'와 '크루아상'이에요. 여백 커피는 카페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아인슈페너인데요, 보통 아인슈페너를 잘못 만들면 크림의 농도와 커피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아주 느끼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크림은 가볍고 적당한 당도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백 커피를 다른 메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초코 크루아상은 보통 초코커버칩이 발라져 있어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저희는 주문 즉시 발라드리기 때문에 따뜻하고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카페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대사회에서 카페란 단순히 커피를 마신다는 의미보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혹은 일상의 쉼표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간에서 커피와 디저트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시간에 먹는 행복을 더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카페 여백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처음의 생각들은 잊지 않으면서 성실히, 또 신선한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바람이에요.

카페, 베이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래1길 45



카페 베이지의 시작이 궁금해요.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다가 취미로 즐기던 베이킹이 시초가 되어, 이렇게 '카페 베이지'를 열게 됐어요. 처음엔 '디저트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그 막연한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름을 정할 때는 베이지라는 색이 주는 인상에 주목했어요. 베이지는 주변에 잘 어우러지고 부담 없이 느껴지는 색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한 편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누군가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하게 됐어요.

말씀하신 베이지의 색감 때문인지, 들어오자마자 카페 분위기가 무척 밝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카페를 채운 베이지의 색감도 한몫하지만 따스한 별이 무척 좋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햇살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페에 머무는 분들이 햇빛이 주는 편안함과 노곤함을 느끼며 기분 좋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음료와 디저트도 맛있고요.

베이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인스타그램을 유일한 채널로 삼고 손님들과 소통하는데, 관련 피드를 자주 찾아보죠.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잘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좋은 반응을 발견하면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 힘을 얻죠.

앞으로 베이지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이쪽 분야에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실한 베이지만의 색깔을 찾으려 했고, 이런 노력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으로 남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단순히 카페라는 공간이 아닌,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요.

주인장으로서, 카페 베이지를 다녀간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슬픔이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블랙울프

경기도 화성시 자산2길 4-5



블랙울프의 시작이 궁금해요.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거쳤어요. 원두 수입부터 로스팅까지 직접 해나가면서 블렌딩 원두에 잘 어울리는 메뉴를 개발했죠. 그리고 블랙울프라는 카페를 열게 됐어요. 늑대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이면서, 강인하고 독보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점이 제가 만든 커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게 이름을 정했죠.

카페 분위기와 이름 뜻이 아주 잘 맞아요.

그렇죠. 블랙과 울프의 색감을 살린 인테리어로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어요. 지금도 담당 디자이너와 디자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블랙울프가 늘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블랙울프는 현재 2호점까지 있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2호점은 오산대역 주변에 있어요. 현재 3호점인 카림동탄역점을 오픈 준비 중이고요. 가맹점은 본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서든 기복 없이 좋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어요. 저희만의 시그니처 블렌딩 원두를 정기적으로 납품받아 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죠.

대표 메뉴를 꼽아보자면 어떤 걸까요?

자체적으로 블렌딩한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맛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모든 메뉴가 다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꼭 커피뿐만 아니라 빙수, 맥주, 브런치, 디저트에서도 블랙울프만의 맛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 카페라테와 드립 커피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립 커피는 원두마다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살려서 취향대로 즐기실 수 있어요.

앞으로 블랙울프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원두의 종류를 늘리려는 노력도 이어가려 하고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며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카페 9295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동로36번길 1



카페 9295의 시작이 궁금해요.

저희는 92, 95년생 예비 부부고요, 카페 이름은 단순하게 92년생과 95년생이 함께 꾸려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정하게 됐어요. 저희 카페는 화성의 조암에 있는데, 이곳은 제 고향이기도 해요. 사실 같은 화성이라고 해도 조암은 시골에 가까워서, 어릴 때부터 햄버거나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들은 찾기 어려웠어요. 이런 이유로 조암이라는 작은 마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하기 어렵던 디저트를 쉽게 맛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그렇게 저희 둘 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뛰어들게 됐어요.

카페 9295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디저트 가게에 마진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저렴한 재료로 만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재료에 무척 민감한 편이라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카페 9295가 다른 가게들에 비해 낮은 가격에 좋은 재료를 포기하

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카페를 시작하게 된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쉽게,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마카롱 종류가 무척 많아요.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뭔가요?

효자 메뉴는 인절미 마카롱이에요. 국산 콩가루를 사용해서 단맛은 빠고 고소함은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연령 불문 모두가 찾아주시는 메뉴죠.

주인장으로서, 카페 9295를 다녀간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마카롱은 작업실의 여러 환경에 따라 작업 방식이나 보관 방법이 달라지는, 만드는 사람에게는 애증의 디저트예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생각하며 더 신중하게 작업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느 누가 먹어도 그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해보지 못한 습관, 본 적 없는 익숙함



소다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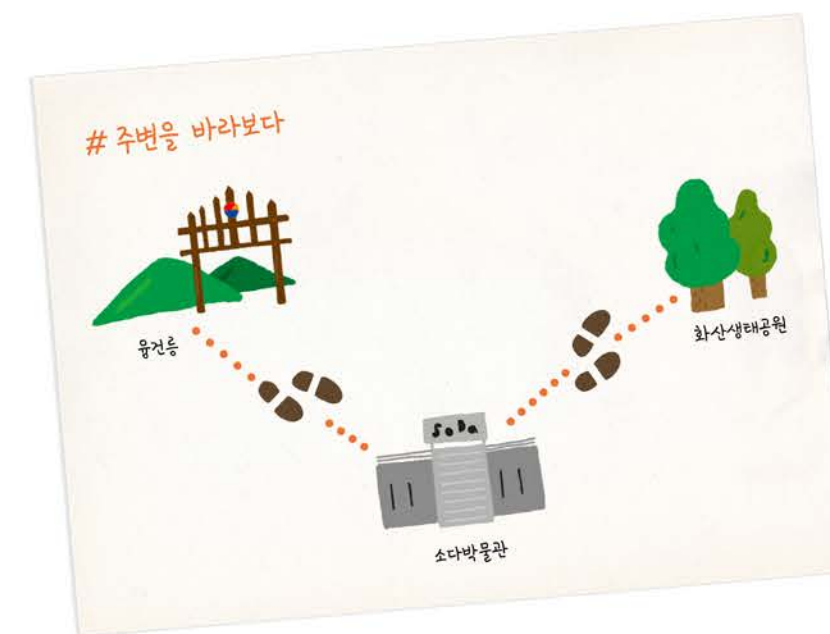
미술관에 가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주 찾아가지 않지만, 가끔은 미술관에 가고 싶다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사람들이 유독 느리게 걷고 서로 적당한 간격을 두려고 노력하는 곳을 생각하면 그곳이 벌써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진다. 한곳에 두 발을 붙인 채로 오래 정지해 있는 사람들. 하얀 빈 벽 앞에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인상을 쓰는 표정들도 떠오른다. 몇몇 아이들만 답을 아는 듯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곳. 무얼 먹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다가, 잠시지만, 거기서는 무얼 먹겠다는 생각도 멈춘다. 미술관을 떠올리면 이런 분위기들이 먼저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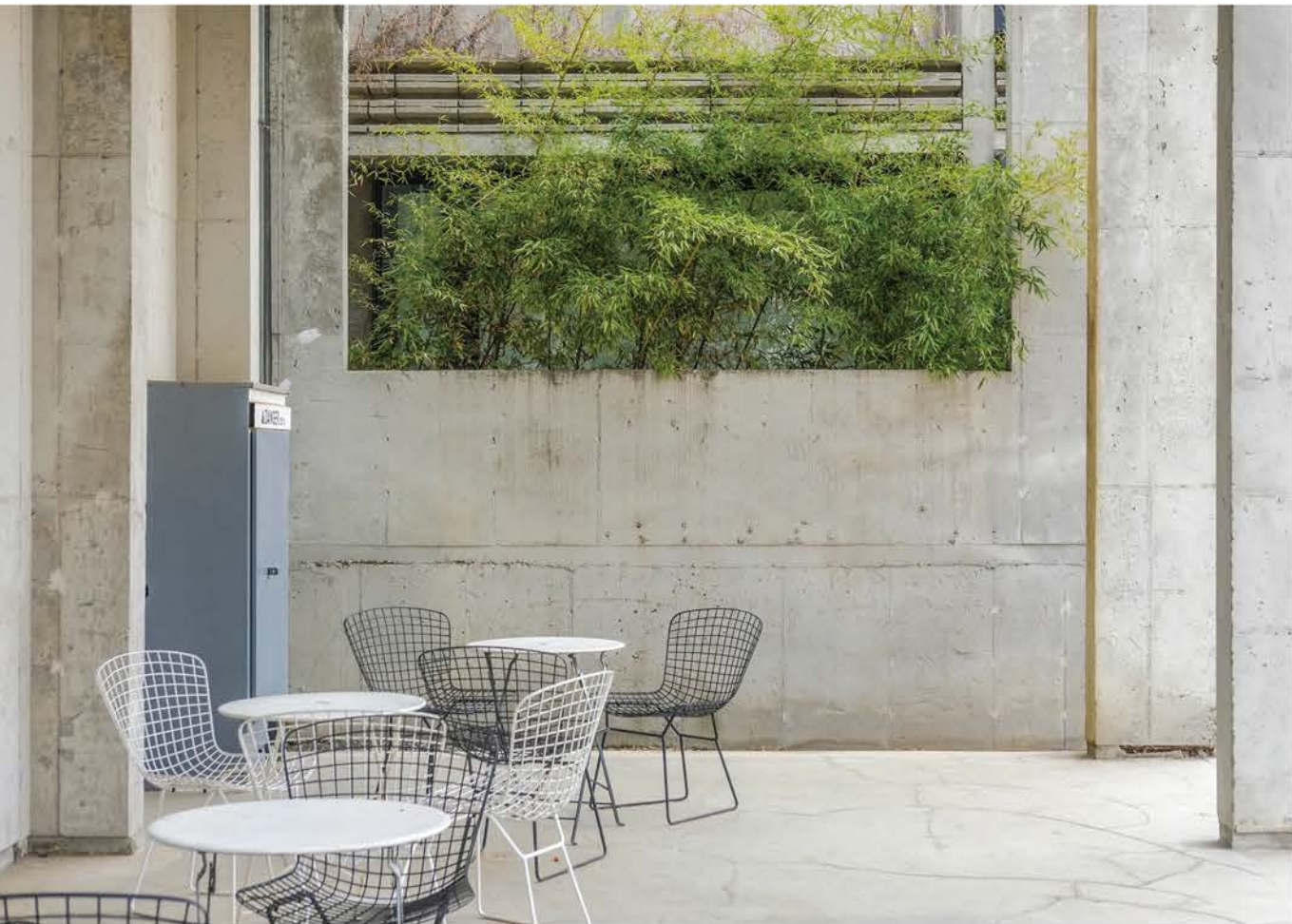
글·사진 전진우 일러스트 윤원정

미술관을 채우는 모두의 감각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건축가는 도서관을 숲에 비유했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 속에 하나하나 이야기가 들어차 있고 그 전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숲의 생태와 닮아 있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 시선에 공감했다. 작은 움직임으로 가득 찬 숲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조용한 도서관은 사실 생기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앞뒤를 바꿔 생각해봐도 그렇다. 과연 숲이 아니라면 도서관을 설명할 더 좋은 예시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던 내게 ‘그렇다면 미술관은?’ 식의 질문도 가능했다. 도서관이 숲이라면 미술관은 잘 가꾸어놓은 ‘정원’을 떠올리게 했다. 숲보다는 정적이지만 그 안에도 목직한 변화와 계절이 있다. 하나하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식물들이 ‘숲’을 채우고 있다면, ‘정원’에는 세심한 누군가가 골라놓은 이름 몇 개가 띄엄띄엄 들어서 있는 것이다.

소다 미술관은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큰 정원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건물의 뼈대만 남긴 곳. 원래는 벽지나 타일, 나무로 가려져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필요한 내부 공간은 몇몇 화물 컨테이너로 채운 곳이니까, 뼈대라는 말이 큰 과장은 아니었다. “이 건물이 예전에는 찜질방이었어요.” 안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게 말했다. 그제야 큰 기둥이 보이고 또 네모나게 움푹 들어간 특이한 공간이 몇 개 보였다. 저기에 따뜻한 물이 차 있었겠구나, 나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미술관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경직됨이 목욕탕을 상상하며 조금은 느슨해졌다. 내부에서는 ‘감각수업’이라는 주제로 일곱 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품들을 걸어놓고 있었다. 여섯 번째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림들, 우리 눈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찰나를 찍은 사진들, 청각을 시각화





한 도형들. 세상에는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모르는 감각도 있고, 나는 미미하게 느끼는 것을 누군가는 폭발에 가깝게 경험하기도 한다. 전시를 따라가 보면, 무엇보다 내가 가진 감각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작가들은 알려준다. 빈 공간으로 방치되던 이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든 건 젊은 건축가의 아이디어였다고 안내자는 말했다. 토지 소유주나 화성시에서 골칫거리로 삼던 이 지역의 문제점들이 한 건축가에게는 어떤 힌트로 느껴졌던 것일까. 내부 전시를 다 보고 나온 나는 소다 미술관 자체가, 여느 다른 미술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 자체로의 커다란 전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평일 오후의 미술관에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조용함이 있었다. 사람이나 기계가 전혀 없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적이 아닌, 사람도 있고 기계도 있는 와중에 그 많은 것들을 다스려서 만들어낸 '도시의 정적'. 어떨 땐 그런 수고로움이 문득 느껴져서 도시에 산

다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찾기 힘들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 안팎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카페에 앉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한참 구경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와 모처럼 주말이 아닌 평일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수사자처럼 혼자 느릿느릿 걸어 다니던 아저씨. 2층 야외 전시관 데크 보수공사를 끝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자들도 걸음이 큰 소리 내지 않게 신경 쓰고 있었다. 늦겨울의 전시 '감각수업'에 모두들 각자의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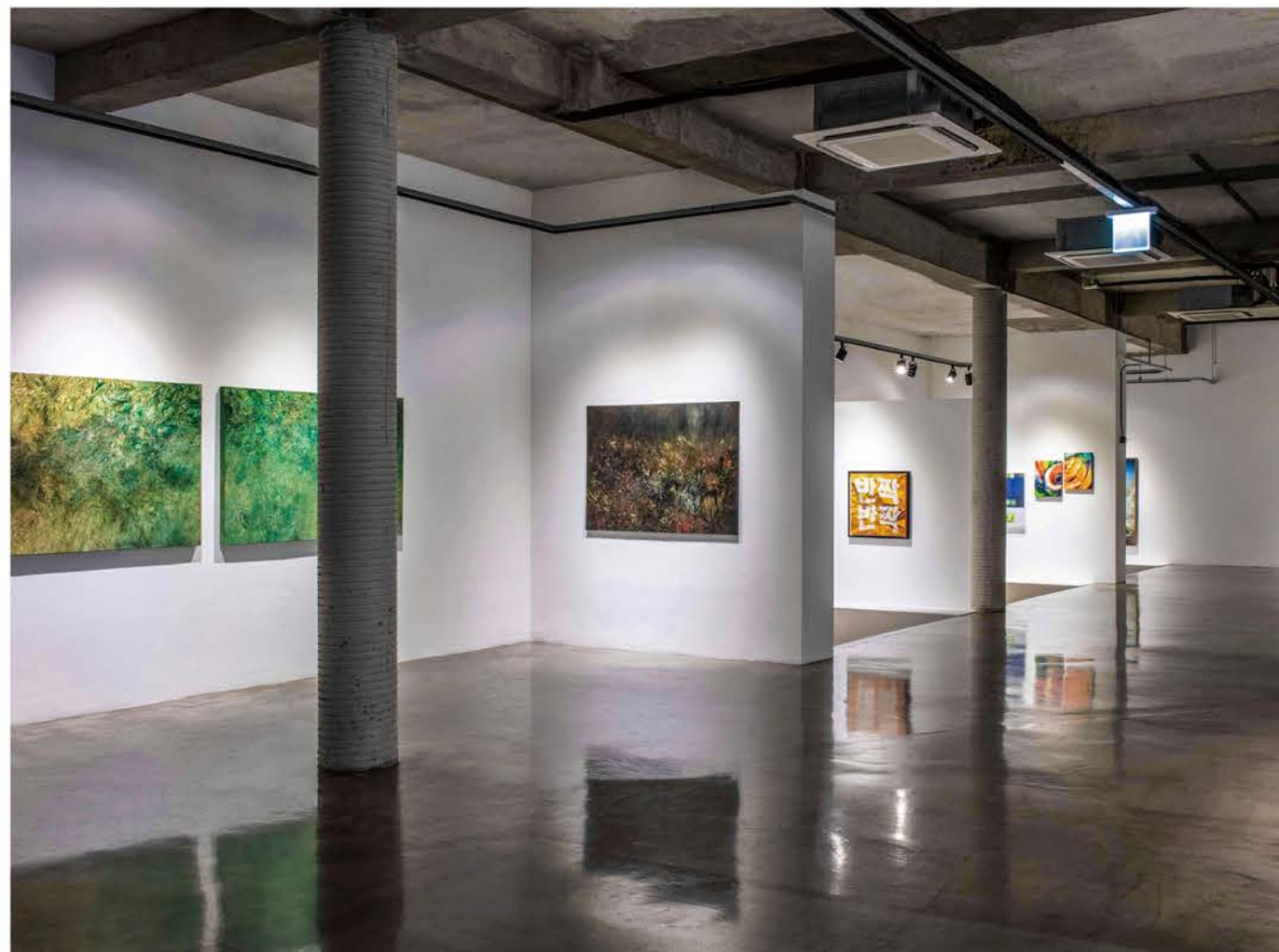
소다 미술관

A.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H. museumsoda.org

T. 070 8915 9127

O. 10:00~19:00 월요일, 명절 휴무



화성 무봉산 만의사

1600여년의 세월을 담은 역사를 가지며

봉황이 춤을 추듯 굽이굽이 산길을 걷게 만드는 사찰

글·그림 박정연



통일신라시대의 창건 설화

전해지기로 1600여 년 전 인도의 고승이 범종과 불경, 불사리를 가지고 지나던 중 명당을 알아보고 절을 지어 범종을 올렸다 한다. 고려 충렬왕, 충선왕 때도 중건하면서 범종을 주조하였고, 이후 중창 때마다 범종을 주조했다고 전해진다.

수차례 주조된 범종은 수원 팔달문으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현재 만의사의 범종은 일본인이 태평양전쟁 때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져간 것을 참회하며 주조한 참회의 종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찰의 역사와 범종이 깊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만의사 골짜기가 명종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봉황의 춤처럼 배치된 전각

무봉산은 봉황이 춤추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 때문인지 사찰을 돌아보는 내내 굽이치는 산길을 경험했다. 부드럽게 곡선으로 배치된 계단을 올라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연못을 지나 왼쪽으로 종각과 누각 사잇길을 지나고 대웅전 우측으로 산신각을 지나고 석조 미륵불을 마주하게 된다. 한 번에 계획된 사찰의 배치였다면 이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대칭의 배치와 반듯한 동선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파도치듯 배치된 기와지붕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전각이 더 해져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연 건축가

Grid-A 건축사사무소 대표 grid-a.net

네이버 블로그 '집을 그리는 사람의 건축답사기' architour.pe.kr

The 찾다

문화를 찾다

ATELIER

미술작가 김일자의 작업실

PEOPLE

플라리스 합창단

AR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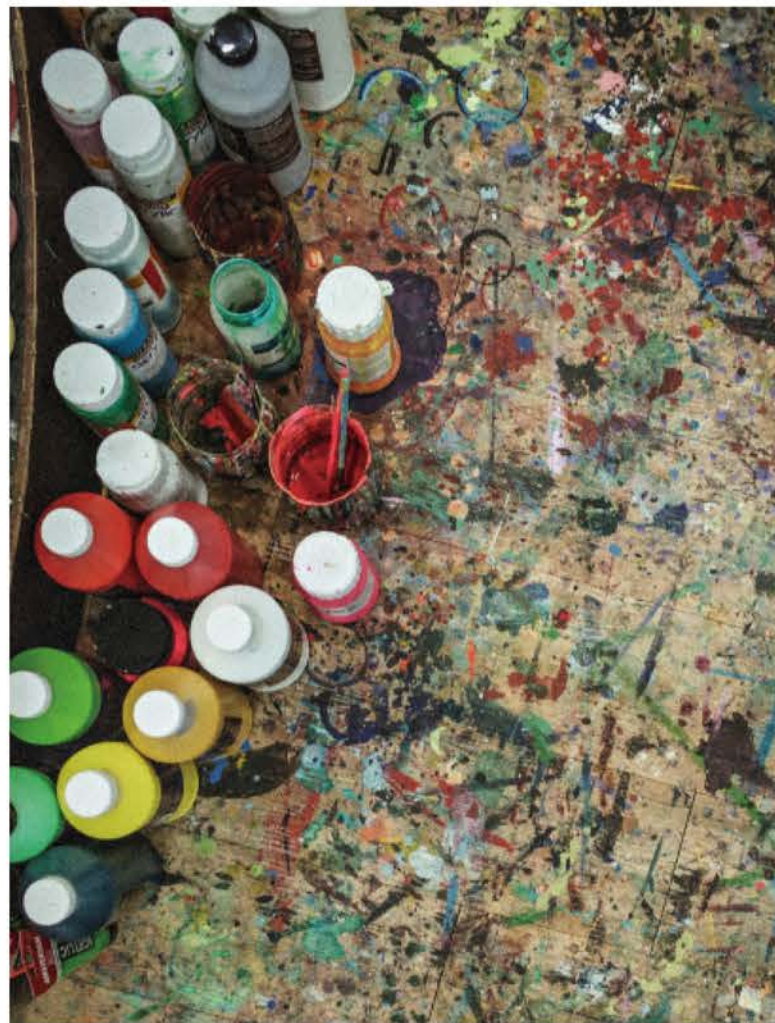
〈태양의 후예〉의 갈대밭

RECIPE

연근 물김치
바지락 두부 연포탕



확장하는 원으로 말하다



미술작가 김일지의 작업실

한글 자음 '이응(ㅇ)'은 그 자체로 아무런 소리도 갖지 못하는 묵음이다. 존재하지만 부재하고, 부재를 존재로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글자 속에 김일지는 산다. 화성 반월동의 음악학원에서 작업하는 작가. 그의 작품과 작업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글·사진 김건태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누구인가요?



복합매체로 작업하는 김일지입니다. 김일지는 본명이고요. 부모님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처음부터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었고, 공대를 다니다가 쳇바퀴 같은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천재는 따로 있구나, 지구의 발전과 평화는 그 친구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생각했죠(웃음).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림 그리는 기계'였어요. 거의 작업실에 살았거든요. 당시에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가 저녁 8시에 문을 잠갔는데,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청소 아주머니가 출근하시는 새벽부터 학교에 가곤 했어요. 제 그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음, 학부 때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어요. 그러다가 스

스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소리를 가졌는지 고민하면서 형태가 변한 것 같아요. 평면적 회화에서 입체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은 일주일의 반 정도는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대구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심심한 곳이에요. 얼마나 조용하냐면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웃음). 아, 얼마 전에는 산책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간판에서 '이응(ㅇ)' 하나를 발견했어요. 불에 타고 남은 이응을 보면서 맥락 안에서 탈락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작업에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제 작업은 크게 추상회화와 복합매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무래도 추상작품이 대중에게는 조금 어렵다 보니 단추라는 매체로 확장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주로 원 형태를 띤 작품이 많은데, 한글 자음 이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응은 모음 앞에 위치할 때는 사실 발음되지 않는 소리예요. 한글 고어에서는 비어 있는데 조어적 안정감을 위해 이응이 들어가는 거죠. 회화의 경우 마스킹 기법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막은 채로 배경을 칠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계획한 부분은 구멍이 되는 거죠. 그런다기보다는 지운다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조금 어렵나요? 제가 해외생활을 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소리를 다시 찾는 과정들이 작업에 녹아들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전달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단추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단추는 소매에 있으면 매듭을 짓는 데 사용되지만, 위치를 옮기면 장식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또 라벨에 붙은 예비 단추는 기존의 단추가 부서져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이 현대 인간상, 즉 움직이는 자아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유학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조그만 동양 여자애일 뿐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제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응에서 단추로’는 10x10cm의 캔버스 안에 단추와 이응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작품이에요. 3년 동안 300여 개의 작업을 모아 하나의 군집을 만들었죠. 큰 작품들과는 달리 가까이에서 봐야 해요. 그 거리감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업을 하며 행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더욱 유희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려 했어요.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정작 관람객들은 ‘맛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 역시 감각의 전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관람객이 제 작업을 저와 같은 층위로 알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작업은 작업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관람객이 가져가는 건 또 그 나름대로의 몫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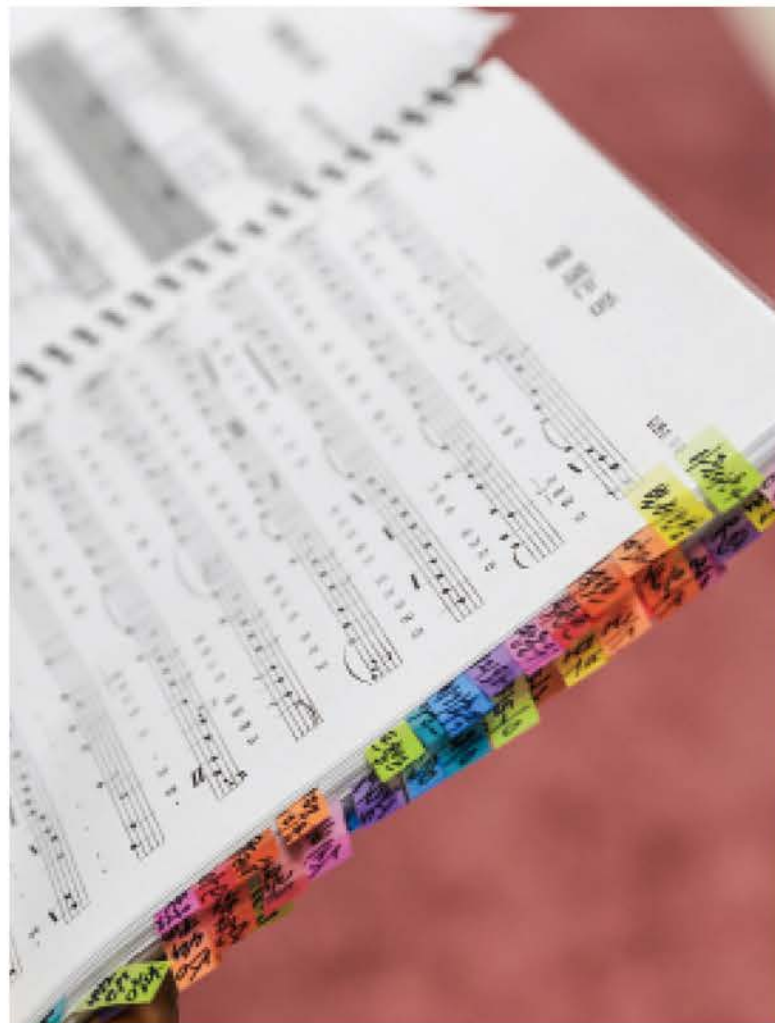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 반월 작업실은 2015년 초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4년이 됐네요. 상가 건물의 음악 학원이던 곳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조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어서 그냥 쓰게 됐어요. 언젠가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대로 둔 물건도 있고요. 절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웃음). 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작업실에 많이 머물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서 생활하거나 논문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많거든요. 작업실은 구조적으로 방이 나뉘어 있어서 바탕칠이나 세부 그림, 건조 등을 각각 분리해서 작업해요. 작품을 건조할 때는 바깥에 나가 있어요. 제

성격상 건조할 때 꼭 한 번 건드려서 작품을 망치거든요. 이 작업실엔 창문이 없어서 시간을 잘 몰라요.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며 ‘아, 지금 이 프로가 하는구나.’ 하며 시간을 아는 거죠. 이곳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화성예술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 시민들을 초대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작품 위에 글씨도 쓰고 단추도 만들면서 즐겁게 작업했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제 작업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공간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황금별을 찾기 위해 떠난 사람들



폴라리스 합창단

하늘의 가장 크고 빛나는 별, 북극성. 빛나는 별을 찾기 위해선 그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한다.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 '황금별'의 가사 내용이다. 연습한 곡을 들려줄 수 있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황금별'을 부르는 폴라리스 합창단에는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다.

글·사진 신혜진(기획홍보팀)



안녕하세요, 먼저 네 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명해 안녕하세요. 저는 합창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해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합창단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희 지휘자이신 김준호 선생님이 합창단을 모집하셨고, 지금은 제가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미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아들이 있는 평범한 주부고요. 오후에 하는 일이 있어서 남는 오전 시간에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희 저는 살아가는 의미를 합창단에서 느끼며 활동하고 있는 우영희입니다.

정정길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정정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모여 노래하는 합창단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합창단에 참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신미자 읍사무소에 불일을 보러 왔다가 합창단 모집 광고를 봤어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저만의 생활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저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시절 합창단에 대한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게 됐어요.

우영희 전 서산에서 합창단 활동을 10년 넘게 했고, 화성으로 이사 와서도 계속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얼마 전부터 폴라리스 합창

단과 함께하게 됐어요.

정정길 저는 뭐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다가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웃음). 그리고 노래를 못하니까 도전한다는 의미로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죠. 근데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창단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이명해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문화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 직장이 있고, 각자 일이 있다 보니 전부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으로 나누어 연습을 진행해요. 지휘자 선생님이 기초적인 발성부터 노래하는 법을 지도해주세요. 그리고 곡을 정해 한 부분, 한 부분씩 배우고 연습해가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걱정말아요 그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 '황금별' 같은 곡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그렇게 연습한 곡들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신미자 아! 지난번엔 공평항에서 열린 생활문화축제에도 참여했어요. 어린이 합창단이란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함께 불렀는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공연 영상을 보는데 볼 때마다 뭉클해요.

공연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무척 힘들지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정정길 지난번에 양로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으시며 함께 흥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신미자 그리고 보니 개인적으로도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정정길 아 그건 성당에서 하는 거고, 사실 아내랑 같이 음악으로 봉사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악기를 배우기도 했어요. 아내는 하모니카, 나는 색소폰.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합창단 활동을 하니 이런 봉사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신미자 저도 그냥 노래가 좋아서 왔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뿌듯했어요.

이명해 맞아요.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힘이 돼요.

합창단 하시면서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영희 전 행복해져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한다고 칭찬해주며 이끌어주는 지휘자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크게 노래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또 두 시간 동안 배운 노래를 일주일 동안 흥얼거리면서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모두 그럴겠지만 사는 게 이런저런 일로 지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연습하는 동안은 온전히 내 시간이니깐 우울함도 사라져요.

신미자 저는 고1인 아들과 연결점이 생겼어요. 한참 사춘기를 지

나며 서로 할 얘기도 없어지고, 대화도 어색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를 배우고 아이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분야는 다르지만 음악을 계기로 공유할 게 있더라고요. 노래 연습할 때 악보도 좀 봐달라고 하고, 이것도 연주해보라고 하고, 서로 취미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생겼어요.

정정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좋아요. 다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서면 느껴지는 설렘이 있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여 있는 것, 함께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명해 맞아요. 우리 합창단에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이 함께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연습 끝나고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새해에는 윷놀이도 하고 함께 모이면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전해주세요.

이명해 합창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시길 바라요. 삶이 즐거워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정정길 풀라리스 합창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도 하고 있으니 노래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웃음).



풀라리스 합창단은 2018년 3월 창단, 현재 1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혼성 합창단이다. 클래식한 성악곡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하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52개의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다.

동호회 가입 및 등록 문의

031 8059 1783

THE 찾다

외롭지만은 않은 섬

〈태양의 후예〉의 갈대밭

‘섬’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동반한다. 바다에도, 육지에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호함 때문에 그럴 것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 배경이 된 ‘형도’의 갈대밭 역시 왠지 모를 쓸쓸한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알고 보면, 형도는 외롭지만은 않은 섬이다.

글 이다은



© 〈태양의 후예〉



© 환경시절

〈태양의 후예〉의 그 갈대밭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 ‘유시진’과 한 여자 ‘강모연’. 두 사람은 각각 파병과 의료봉사 목적으로 떠난 ‘우르크’라는 오지에서 커다란 재난과 맞닥뜨린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군인 시진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살려야만 하는 의사 모연은 좁힐 수 없는 신념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물론 두 사람의 갈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극복된다. 극은 그 과정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몇 년 전 방영 내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야기다. 극 초반에 시진이 소속된 특전사 ‘알파 팀’이 북한군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온다. 군인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몸을 스치는 스산한 바람 소리, 드넓고 고요한 갈대밭의 분위기가 실제 비무장지대를 엿보는 것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특전사라는 직업의 단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아득한 새벽을 배경으로, 고요한 어느 섬에서 촬영되었다.

호젓하게 살아 숨 쉬는

〈태양의 후예〉속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던 ‘형도’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에 딸린 작은 섬이다. 아니, 섬이었다. 1980년대 말 서해안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화호 간척사업이 실행되면서 육지와 이어지게 됐다. 저울 형衡, 섬 도島 자를 써서 우리말로 저울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알려주며 일대에서 어업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으므로, 형도에게 간척사업은 꽤나 혼란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드넓은

바다가 기다란 방조제로 막혀버리고 더 이상 기준을 알려줄 사람도, 상황도 남지 않게 되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외로움을 업고 이 섬은 그만의 고요한 풍경을 갖게 되었다. 여전히 형도를 오고 가는 철새들은 호젓한 이 섬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래된 섬, 새로운 이야기

‘우음도’는 자주 형도와 함께 이야기되는 섬이다. 형도가 쓸쓸한 가을의 느낌을 담고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이 섬은 좀 더 평온한 기운을 띤다. 우음도 역시 시화호 간척사업 때 육지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섬 곳곳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갈대와 빨간 군락 덕분에 드라마, 영화, 웨딩 스냅과 출사 등 각종 촬영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우음도의 이름은 바람이 세게 불면 육지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형도처럼 사연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이나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 속 섬의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넘실대는 파도 같은 갈대밭은 우음도가 아직 섬이던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름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색다른 풍광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은 어쩌면 참 다행인 일이다. 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두 섬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외로운 섬이었다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잊지 않고 섬을 찾는다.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는 섬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다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끝날 것 같던 외로운 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

화성시의 식탁 오픈키친 레시피

손으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나누며 나와 이웃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공간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오픈키친에서 제안하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일러스트 미화



Recipe 01 · 연근 물김치

기본재료

연근(중) 2개, 무(중) ½개, 배 1개, 대추 10개, 비트 10~20g

양념: 다시마 풀 국 1컵, 생수 1.5L, 마늘 1큰술, 생강 ½작은술, 소금 2큰술

만드는 방법

1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동그랗게 썰어 1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 가 물기를 제거한다. 이때 수시로 물을 갈아준다.

2 무는 납작하게 썰어준다.

3 비트는 곱게 채 썰어 국물만 우려낸다.

4 마늘, 생강은 체에 넣고 국물만 걸러 놓는다.

5 김치 국물 간이 맞으면 껍질 깬 배를 6~8등분으로 잘라놓고 대추는 통째로 사용한다.

6 용기에 연근, 무, 배, 대추를 켜켜이 쌓은 다음 국물을 부어준다.

7 물김치를 그릇에 담을 때 배는 담지 않는다.

기본재료

조개(바지락) 500g, 배춧잎 4장, 두부 1모, 생표고버섯 2개, 미나리 50g, 홍고추 1개, 무 100g, 당근 50g, 팽이버섯 30g, 소금·후추 약간, 마늘 1작은술

육수: 황기 50g, 마늘 20g, 생강 10g, 무 100g, 북어머리 1개, 대파 1대, 물 10컵

속재료(두부, 바지락 양념): 두부 100g, 다진 바지락살 50g, 다진 대파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소금·후추 약간, 다진 청양고추 1개, 다진 홍고추 ½개

만드는 방법

1 육수는 준비된 재료를 넣고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준다.

2 바지락을 해감하여 육수에 삶아 살을 발라내고 국물은 체에 걸러 놓는다. 바지락살 ½은 다져준다.

3 두부는 4x5cm, 두께 1cm로 균일하게 썰어 소금을 뿌려 물기를 제거하고 두부 100g은 다져서 물기를 제거한다.

4 배추와 미나리, 팽이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5 표고버섯은 편으로 썰어준다.

6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0.5cm로 어슷하게 썬다.

7 무, 당근은 모양을 내어 살짝 데쳐준다.

8 다진 두부, 다진 바지락살은 양념을 하여 두부 사이에 끼워 넣고, 미나리로 묶어 모양을 잡아준다.

9 전골냄비에 준비한 국물에 손질한 재료를 보기 좋게 담고 국물에 간을 하여 끓여준다.

Recipe 02 · 바지락 두부 연포탕



The
보다

내일을 보다

BOOK & STORY

삶의 예술가가 되는 법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을 보다

CULTURE CALENDER

3·4월 문화 캘린더



삶의 예술가가 되는 법

사람들은 대개 예술과는 관계없이, 예술가가 될 일도 없이 매일을 살아간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한다. 예술이 별건가. 그리고 삶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두 권의 안내서를, 밑줄 그으며 읽었다.

글·사진 한수희

수년 전 출장으로 영국 런던에 갔다. 돌아오기 전 하루 쉬는 날이 있어 템스강 하구 쪽을 산책하다가 커다란 공장 건물 같은 걸 발견했다. 건물 앞 잔디밭 위에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키스를 하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여기가 그 유명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 이 미술관에서는 마티스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마티스에 조금, 아주 조금 관심이 있었다. 전시나 한번 볼까 했는데 로비로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영어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보다 더 그 미술관의 어마어마한 천고에 기가 놀려버렸다. 마티스는 무슨 마티스야. 그냥 가서 잔디밭 위에 누워, 나는 발걸음을 돌려 잔디밭 위에 누웠다. 키스를 할 남자는 없었다. 아쉽게도.

그날 기념품 숏에서 사온 마티스의 엽서 한 장을 나는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엽서를 볼 때마다 내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다.



최혜진의 책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을 읽었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20대에 방문한 반 고흐의 묘지에서 그림과 삶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작가가 어느 순간 북유럽의 화가들에게 매료되어, 틈만 나면 북유럽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림들을 만나고 그 그림을 그린 이들의 묘지를 헤매고 다닌 이야기다. 그는 화가도 아니고, 미술사학자나 평론가도 아니다. 오로지 좋아하는 것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다. 동시에 이 성실한 안내자는 낯선



그림들 뒤에 숨은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에 빗대 친절히 들려준다.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이 사람에게 감탄하며 그 길을 쫓아간다.

북유럽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의 회화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북유럽의 화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가족들을 그린다. 조용히 바느질을 하는 고개 숙인 여성을 그리고, 집 안에 스미는 햇살을 그리며, 불이 발개지도록 얼음을 지치는 가난한 아이들을 그린다. 해변에서의 조용한 산책과 눈 덮인 고향의 소박한 풍경을 그린다. 북유럽의 화가들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닳고 닳은 생활의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상에 대한 긍정은 매일 쓰는 물건, 매일 거니는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표출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운명에 만족하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번두리에서 화려한 주목 없이 살아가는 내 삶도 꽤 그럴싸하고 아름답다는 자기 긍정 같은 것.

-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중에서

미술을 감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도 물렸고 지금도 잘 모르는 나는 이 책의 안내를 통해 먼 나라에서 온 그림이 나의 것이 되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 수많은 즐길 거리에 파묻혀 그 중 어느 것에도 온전히 시간과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어느 하나의 대상을 공들여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보통 이런저런 책을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고, 한때는 교육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다. 교육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좋은 인간이 되는지를, 어떻게 좋은 삶을 사는 관점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는 예술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이미 마흔에 접어든 내게도 가슴 설레는 구절로 가득하다.

상상력은 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능으로, '만약에'를 고려할 수 있는, 즉 주어진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적 행위주체성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만약에'의 문제를 실현시키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능력이다.

-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중에서



나는 대학 시절 영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나는 예술은커녕, 예술 비스무리한 것도 누리보지 못한 시골 출신의 수줍은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은 별로 즐겁지 않았다. 예술을 한다는 건 생각처럼 근사하지 않았고, 자퇴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끝내 졸

업을 했고, 졸업 후에는 예술과는 별 관계없는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와서야 그 대학 시절을 좀 다른 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시절의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좋게 말해 자유롭고, 나쁘게 말해 무대책. 우리는 그저 관촬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관촬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훌륭한 영화들을 보고, 그 훌륭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직접 영화를 만들면서 내 실력과 재능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깨달았다. 당연히 그건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중 대부분은 영화감독도, 예술가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었다면 언제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었을까.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따지고 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예술의 과정 지향성은 지속되는 자기평가(내가 잘하고 있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물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시험(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과 다른 영역이다. (중략) 실수를 장애물이 아닌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의 학습에 영향을 준다.

-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중에서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될까? 예술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유럽의 그림들은 내게 더 먼 곳이 아니라,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더 천천히 바라보라는 말을 건넨다. 그리고 언제나 예술은 내게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도 말해준다. 나의 단점과 약점이 나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워준다. 그것은 예술이 삶에 주는 선물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이건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최혜진 | 은행나무

코펜하겐, 오슬로, 베르겐, 스톡홀름, 모라, 헬싱키, 예테보리, 스카겐, 라네르스, 오르후스, 저자 최혜진은 이름만으로도 낯선 북유럽 도시의 미술관들을 3년간 직접 돌아다니며 그 기록을 책에 담았다. 미술관에서 마주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김수희 | 아시아

저자의 작가수업 시리즈 1탄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에 이어 2탄으로 탄생한 책이다. 삶이 언제 예술이 되는가를 논하고 생기는 질문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룬다. 책은 작가가 되고 싶고 문학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헌사를 보낸다.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을 보다

지루해지기 쉬운 일상,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당신만의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추천할 만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 신혜진(기획홍보팀)

봄처럼 산뜻한

공연 · 전시



양다일 X 서사무엘 콘서트: The Unique

따뜻한 봄을 맞아 반석아트홀에서 젊고 새로운 뮤지션들의 감각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양다일 X 서사무엘 콘서트: The Unique〉가 열린다. 폭넓은 음역대와 깊고 애절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차세대 보컬리스트 양다일은 ‘잊혀지다’와 ‘이토록 뜨거운 순간’에 참여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안해’, ‘고백’ 등 가슴 아픈 이별 노래로 ‘프로 이별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에 걸맞은 깊은 감성의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음원 사이트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서사무엘은 랩핑과 보컬의 구분을 짓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뮤지션이다. 음악 활동 외에도 패션,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양다일의 ‘미안해’, ‘고백’, ‘사랑했던걸까’, ‘우린 알아’ 등의 히트곡과 함께 서사무엘의 ‘G O Y O’, ‘DO:OM’, ‘창문’ 등을 들을 수 있다.

일시 2019년 3월 16일 오후 5시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40,000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문의 1588 5234



블루인디아: 인도현대미술展

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인 칙칙함에서 벗어나 눈이 시원해지는 파격적인 색감과 구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인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복도갤러리에서는 인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작가 4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키텍스에서 열렸던 아트아시아 2018에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비노이 바게스, 셰이크 아즈가르 알리, 라즈 모레, 아슈토시 바드와즈가 작품의 주인공이다. 비노이 바게스는 무성한 초목과 화려한 꽃을 배경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그려냈다. 눈을 빼앗는 화려한 색감과는 달리 자연과 대비되는 소외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도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를 담아내고 있다. 뭄바이 슬럼가를 지켜보며 받은 강한 에너지를 표현한 작가 라즈 모레, 자유로운 생각의 유희를 그리는 작가 셰이크 아즈가르 알리, 단절된 소통을 위한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가 아슈토시 바드와즈까지,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인도 현대미술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일시 2019년 3월 5~17일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M1층 복도갤러리
가격 무료
문의 031 8015 8266



어린이 발레극 댄싱뮤지엄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EQ 감성을 위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게 하고 싶지만, ‘관람 연령이 맞지 않아서’, ‘좀처럼 집중해서 작품을 보기 어려워서’ 등 여러 이유로 순수예술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화려한 대중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에게 클래식 장르는 지루하고 어려운 장르일 뿐이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에게 흥미로운 공연 소식이 있다. 서울발레시어터의 〈댄싱뮤지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몸의 언어나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상상만 하면 세상의 모든 미술 작품을 불러오는 신비한 미술관을 배경으로 그림 속 캐릭터가 살아나 춤을 추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았다. 작품 안에 발레, 세계 명화, 음악 등을 조화롭게 녹여 순수예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 또한 주인공 ‘마스터’와 ‘토토’의 갈등 속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에 안무가 ‘제임스 전’ 특유의 선곡 능력과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안무,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영상미를 더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2019년 3월 24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가격	전석 15,000원
대상	48개월 이상
문의	1899 3254



계절별 별자리와 별의 이름

봄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우주탐험대’를 운영한다. 도서관 옥상에서 천체망원경으로 천문 관측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4월에는 ‘계절별 별자리와 별의 이름’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우주와 별에 대한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다양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시간으로 4월의 별자리와 달, 목성, 성단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을 직접 보고, 관련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은 물론 만들기 실습도 함께 한다. 강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별자리를 직접 보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수업으로 운영한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체험을 위한 약간의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강좌일을 기준으로 2~3주전에 시작하는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일시	2019년 4월 18일 오후 7시~9시
장소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재료비	5,000원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문의	031 8003 0748



목공DIY스튜디오, 목공 소품 만들기

매월 셋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 ‘木木데이’. 3월 강좌에서는 하루 만에 똑딱 완성할 수 있는 캠핑 테이블 만들기를 진행한다. 목공 경험이 없어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는 나무를 깎아내고 사포로 문지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림과 동시에 수업이 끝나면 하나의 완성품을 가져갈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4월에는 木木데이 외에도 우드카빙 교육을 실시하고, 카빙 도구를 이용한 주방 소품을 만드는 ‘재미난 우드팩토리’를 운영한다. 우드카빙은 어릴 적 칼로 연필을 깎던 손맛의 기억을 살려 나무를 깎아 내 작은 생활 소품을 만드는 목공 기법으로 작은 도구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우드카빙 수업은 원데이 클래스와는 달리 3번의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나무의 결을 익히고, 동그란 것부터 뾰족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무를 깎아낼 수 있는 조각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만들고 싶은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수업을 통해 숟가락, 뒤집개, 나무 접시까지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품들을 완성할 수 있다.

일시	木木데이 매월 셋째, 넷째 주 목요일 우드팩토리 4월 2일~5월 7일 매주 화요일
장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재료비	15,000~30,000원
대상	화성 시민
문의	031 8059 1696



맑고 고운 음색의 오카리나 배우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악기 연주’를 넣는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악기 연주는커녕 악기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채 일상에 치이고 있다. 송산도서관에서 혹시 작은 악기라도 배워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오카리나 강좌를 연다. 핸드백 속에, 주머니 속에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카리나는 날아오를 것 같은 작은 새처럼 생긴 모양대로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 오카리나는 아주 흔하지만, 어쩌면 흔하지 않은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다. 음악을 배워보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오카리나 수업을 통해 간단한 악보를 읽는 법은 물론 악기 연주 방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연주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악기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오카리나는 인터넷이나 문구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은 1~3만원 정도다.

일시	2019년 3월 19일~6월 4일
장소	송산도서관
재료비	15,000원
대상	화성 시민
문의	031 355 5798



도시농부의 수레텃밭

지난 해 첫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 Community Garden'이 2019년에도 열세 가족과 함께 새로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수레텃밭은 가족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어 보고 싶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는 평범한 도시인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텃밭이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의 목공방에서 만든 나무 수레를 이용해 반 평짜리 텃밭을 만들었다.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봄 텃밭에서는 손쉬운 농작물 관리법과 모종 및 파종법을 배우고, 감자, 상추, 허브 등을 심고 수확한다. 공동체 수레텃밭은 지역 내 텃밭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도시생태 농업으로, 화학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주말마다 가족들이 함께 기르고 가꾼 농산물로 팜파티를 마련하기도 한다. 직접 키운 무농약 감자로 만든 감자샐러드, 고기와 함께 즐기는 쌈채소 등을 한가득 차려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를 통해 농사의 즐거움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2019년 3월~7월 / 하반기 8월~11월
장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야외 주차장
문의 031 8059 1783



책에서 배우는 농사 이야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점점 익숙해지는 요즘, 집 안이라도 화초를 가득 놓고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뜻한 공기를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지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테리어 박람회에서도 화분과 꽃으로 가득 채운 부스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보기에는 좋지만 식물을 키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책을 중심으로 농사와 친해지는 강좌가 열린다. 식물에서 배우는 상생과 공존의 의미, 미세먼지 제거 식물 등의 이야기를 담은 《식물의 인문학》, 유기농 텃밭을 가꾸기 위한 지식을 전하는 《땡큐 아메바》, 정원 가꾸기를 '대지 위에 그려내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지킬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식물들에게 따라다니는 벌레부터 물 관리까지 다양한 농사 지식을 담은 《자연농 교실》, 총 4권의 책 속 이론을 배우고 실습해볼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일시 2019년 4월 4~25일 매주 목요일
장소 송산도서관
대상 화성 시민(성인 여성)
문의 031 355 5798



바디챌린지 & 줌바댄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2018년 첫선을 보인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의 '바디챌린지'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3기를 운영한다. 총 15명을 한 팀으로 하여 필라테스볼, 고무밴드 등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법을 알려주고, 함께 운동하는 재미를 전한다. 4월부터는 새로운 강좌 줌바댄스 클래스도 문을 연다. 미국에서 시작된 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줌바댄스는 '빠르고 재미있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진 다이어트 댄스다. 최근 배우 최여진, 박솔미 등이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는 운동 비결로 줌바댄스를 손꼽기도 했다. 봄을 맞아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건강 특강, 줌바댄스는 월, 수, 금 주 3회, 바디챌린지는 화, 목 2회 운영한다.

일시 줌바댄스 2019년 4월 1~30일
바디챌린지 2019년 4월 2일~5월 30일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가격 30,000~40,000원
대상 청소년, 성인
문의 031 8015 8173/4



미술심리 행복그리기

건강한 몸만큼이나 중요한 건강한 마음을 위해 미술심리 동아리 '행복그리기'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심리 수업은 풍경구성법에 따라 그림을 그려보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해 풍경을 채색하여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하고, 완성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도 모르던 '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무심코 그려낸 선 하나, 좋아하는 색에 담긴 의미를 통해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 어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른들 만큼이나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들이 맘껏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며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미술심리 특강은 무료로 운영되며,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한다.

일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11시(방학 기간 제외)
접수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가격 무료(재료비 포함)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15명
문의 031 8015 8221

CULTURE CALENDAR

3

- 기 획공 연
- 대 관공 연
- 영 화
- 전 시
- 축 제
- 행 사
- 강 연, 특 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화성아트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2 1919·정의의 시작 반석아트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3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4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5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6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7 태극기 쿠키 클레이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전 연계강좌병점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8 전례놀이와 만나는 100주년 3.1운동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전 연계강좌병점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9 백설공주 미미 - 숲속오두막 반석아트홀 독립의 그날을 위하여(인형극)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0 백설공주 미미 - 숲속오두막 반석아트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1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2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3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4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만세·잊고 지낸 날 동탄아트스페이스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5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6 양다일X서사무엘콘서트 반석아트홀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7 블루인디아 : 인도현대미술展 화성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18	19	20	21 원데이클래스 목목데이 화성시생활문화센터	22	23 한영애콘서트 화성아트홀
24 댄싱뮤지엄 누림아트홀	25	26 브런치콘서트 '봄날의 꿈' 화성아트홀	27 손준호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미스사이공+레이제라블' 반석아트홀 11시콘서트 with 김사월 누림아트홀	28 원데이클래스 목목데이 화성시생활문화센터	29	3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화성아트홀 매직플러스 상괴도서관
31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화성아트홀						

CULTURE CALENDAR

4

- 기 획공 연
- 대 관공 연
- 영 화
- 전 시
- 축 제
- 행 사
- 강 연, 특 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2 목공우드카빙 생활소품 만들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존버닝햄 그림책 전시 병점도서관(-4/28)	3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4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5 남파탄생121주년 기념음악회 화성아트홀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6 아이비 & 민우혁의 원더풀데이 뽀뽀아트홀 박주혜 작가 특강<백가방 토끼> 병점도서관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7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8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9 목공우드카빙 생활소품 만들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10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11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12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13 NEW 뮤지컬 공순이 '아빠랑 캠핑가요!' 화성아트홀 방귀쟁이 피노키오 인형극 병점도서관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공룡매직쇼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샌드아트 '모래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 송산도서관
14 NEW 뮤지컬 공순이 '아빠랑 캠핑가요!' 화성아트홀 낙서전 동탄아트스페이스	15	16 목공우드카빙 생활소품 만들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17	18 우주탐험대<계절별 별자리와 별의 이름>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19 영화로 읽는 프랑스문학-레이제라블 상괴도서관	20 한지공예 재능기부 특강 병점도서관 매지컬 공연 '씨나의 상상이야기' 송산도서관
21	22	23 브런치콘서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화성아트홀 목공우드카빙 생활소품 만들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24 손준호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엔 오브 라만자' 반석아트홀 11시콘서트 with 김주현 듀오 누림아트홀 [목공교실] 기해년, 내가 만드는 나무 샹트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25	26	27 김대진 라사이틀 반석아트홀 나만의 화분만들기 병점도서관
28	29	30 목공우드카빙 생활소품 만들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소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hcfart